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를 위한 메타데이터 아카이브

Metadata Archive for Hanguel Typography Research

저자 Author: 이병옥 Lee Byoungok
국민대학교 박사과정 Ph.D. Program, Kookmink University

- 이 글의 네 가지 의미
- 연구 배경과 목적
- 아카이브 방법
- 아카이브 목록
- 보완점 및 추후 계획

투고일: 2024년 12월 30일
심사완료 및 게재확정일: 2025년 1월 27일
게재일: 2025년 2월 28일
Received Date: December 30, 2024
Accepted Date: January 27, 2025
Published Date: February 28, 2025
pp.202–209

p-ISSN. 2765-2572
e-ISSN. 2765-7825

한국디자인사학회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자유 기고 Articles from Free Contribution

엑스트라 아카이브 10 Extra Archive 10
디자인사연구 Journal of Design History

202203

요약

이 연구는 1980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국내 학술 논문의 메타데이터를 아카이브 하여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의 흐름과 주요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초기 작업이다. 이를 위해 RISS를 활용하여 주제어 16개를 중심으로 8,455개의 논문 데이터를 검색했으며, 중복된 데이터와 연구와 무관한 논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194개의 메타데이터를 정리했다. 메타데이터는 제목, 저자, 발행 연도 등 기본 정보를 포함하며, 한글 타이포그래피와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 초록 검토와 주제어 재검토, 연구 방법론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의 체계적 조망과 발전 방향성을 탐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핵심어

타이포그래피, 한글, 아카이브, 리서치, 페이퍼, 메타데이터

Abstract

This study serves as an initial effort to archive the metadata of domestic academic papers published between 1980 and 2024 to analyze the trends and key characteristics of Hangul typography research. For this purpose, RISS was utilized to search for 8,455 papers based on 16 selected keywords. After removing duplicate and irrelevant papers, a total of 2,194 metadata records were curated. The metadata includes basic information such as titles, authors, and publication years. Additionally, abstracts were reviewed, and keywords were restructured to enhance the relevance to Hangul typography. This research provides foundational data for systematically understanding the trends in Hangul typography and exploring its developmental trajectory.

Keywords

typography, Hanguel, archive, research, paper, metadata

1. 이 글의 네 가지 의미

이 글은 네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연구 주제를 공유하는 데 있다. 필자는 현재 대학원 박사과정을 진행 중이며, ‘한글’,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아카이브’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이 연구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의 학술 논문을 아카이브 하여 한글과 타이포그래피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시대별 변화와 주요 특징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연구지만, 이 글을 통해 연구 주제와 연구 과정에서의 주요 생각들을 공유함으로써 한글과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 시작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연구 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시작 단계에 있으며, 초기 데이터를 아카이브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연구를 위해 어떤 키워드와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아카이브 했는지와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아카이브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은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초기 과정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으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열린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초기 과정의 공유는 연구의 방향성과 맥락을 명확히 전달하고, 연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셋째, 새로운 시각과 제안을 얻고자 한다는 점이다. 연구는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필자가 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과 질문을 얻을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학문적 배경과 실무 경험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연구의 방향성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아카이브 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이 연구를 통해 아카이브 된 데이터는 한글과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번 글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한글과 타이포그래피라는 분야의 발전과 학문적 확장을 위해 아카이브 작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한다. 공유된 데이터는 단순히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넘어서, 향후 한글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의 역사적 흐름과 변화를 탐구하는 데 있어 기초 자료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연구 배경과 목적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는 학문적·실무적 영역에서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그 연구 흐름을 분석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은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연구는 함성아(2015)의 석사 학위 논문, 「타입과 타이포그래피 연구 동향 분석: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를 주요 선행 연구로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의 틀을 확장하고, 보다 폭넓고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의 흐름과 주요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고자 한다.

2.1. 선행 연구의 내용과 의의

함성아(2015)의 연구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연구 흐름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국내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의 흐름과 변화를 조명하며, 해당 분야 연구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 가능한 물론 특정 시기의 연구 흐름을 알 수 있는 자료로 가치를 가진다. 다만, 그 연구 대상이 학위 논문에 한정되어 있고, 범위 역시 1990년 이후로 되어 있다. 학위 논문 자체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진행한 결과물이므로, 연구자 및 연구의 지속성보다는 주로 학문적 여정의 초기 단계에 수행된 연구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이 연구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 범위와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의 발전적 흐름을 더욱 폭넓게 분석하고자 한다.

2.2. 연구의 범위와 대상의 확장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 범위와 대상을 확장했다. 연구 범위는 1980년부터 2024년까지 확장하여, 최대한 많은 연구를 아카이브하고 그 흐름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또한, 대상 역시 학술 논문으로 설정함으로써 보다 신뢰성과 지속성이 확보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2.3.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다음의 목적을 가진다.

첫째,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체계적으로 조망하는 데 있다.

1980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국내 학술 논문을 아카이브 하여,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 큰 흐름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전반적인 연구 양상을 이해하고, 시대적 배경과 맥락 속에서 연구의 변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특정 시대와 주제의 연구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단순히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특정 시대에 주목받은 연구 주제나 동향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이를 통해 연구가 특정 시기에 왜 특정 주제로 집중되었는지, 연구 초점의 변화가 당대의 사회적·문화적 환경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데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를 토대로, 연구가 어느 부분에 집중되었는지, 부족하거나 더 발전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지 생각한다. 이를 통해 한글 타이포그래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아카이브 방법

이 연구는 1980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국내 학술 논문의 제목, 저자, 발행 기관, 연도 등 주요 메타데이터를 아카이브 하여,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의 흐름과 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메타데이터 아카이브는 연구의 초기 단계로, 정리된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추후 실제 논문 파일(PDF 또는 책 등)을 아카이브 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본격적인 아카이브 작업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논문 아카이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3.1. 검색 사이트 선정

논문 검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RISS(www.riss.kr)를 통해 ‘국내 학술 논문’을 대상으로 아카이브를 진행했다. RISS는 기본적인 메타데이터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대량의 논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다. 한편,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국회전자도서관(https://dl.nanet.go.kr) 및 DBpia(www.dbpia.co.kr)는 검색 가능한 논문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1980년대 논문이 검색되지 않아 제외되었다. 예를 들어, 김진평의 1980년대 논문은 해당 사이트에서는 검색할 수 없었다.

3.2. 주제어(검색 키워드) 선정

이 연구의 주제어 선정은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와 관련성이 높은 용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검색 결과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주제어를 재구성했다. 선행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총 27개의 주제어를 사용했다. 반면, 이 연구는 1980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내 학술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주제어를 16개로 축소하고 재구성했다. [표 1] 이는 연구 범위와 목적에 따라 검색 결과의 정밀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주제어를 배제하여 아카이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선정된 주제어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과정을 통해 조정되었다.

(1) 주제어 통합 및 정리

선행 연구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의미를 가진 주제어는 통합 또는 정리되었다.

· 캘리그래피 통합: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캘리그래피’와 ‘캘리그라피’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에

선행 연구 주제어	이 연구 주제어
글꼴	글꼴
글씨	글자꼴
글씨꼴	글자체
글씨체	레터링
글자 (결과 내 검색: 디자인)	서체
글자꼴	손글씨
글자체	캘리그래피
레터링	타입페이스
서체	타이포그래피
손글씨	타이포그래피
캘리그래피	폰트
캘리그래피	한글 (결과 내 검색:디자인)
타이포그래피	한글꼴
타이포그래피	활자
타입 (결과 내 검색: 디자인)	활자꼴
타이프 (결과 내 검색: 디자인)	활자체
활자 (결과 내 검색: 디자인)	
활자꼴	
활자체	
한글 (결과 내 검색: 디자인)	
한글꼴	
폰트	
Calligraphy	
Font	
Lettering	
Type (결과 내 검색: 디자인)	
Typography	

[표 1] 주제어 재구성

따라 ‘캘리그래피’로 통일했다.

• 활자 관련 주제어 유지: ‘활자’, ‘활자체’, ‘활자꼴’과 같은 주제어는 이 연구에서도 유지하여 개별적으로 검색되도록 했다.

• 글꼴 및 글자꼴 유지: ‘글자체’, ‘글꼴’, ‘글자꼴’은 유지하여 관련 연구를 포괄적으로 아카이브했다.

• 타이포그래피 병행 표기: ‘타이포그래피’와 ‘타이포그래피’를 모두 유지했다. 이는 학술 논문에서 두 표기가 병행 사용되고 있어, 검색 결과의 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¹

(2) 삭제된 주제어

중복되거나 검색 결과가 이 연구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주제어는 삭제했다.

• ‘글자’, ‘글씨’, ‘글씨체’, ‘글씨꼴’: 의미가 모호하거나 검색 결과가 중복되어 삭제되었다. 예를 들어, ‘글자’와 ‘글씨’는 일반적인 단어로 타이포그래피와 무관한 논문이 다수 검색되었으며,

206207

‘글씨체’와 ‘글씨꼴’은 ‘글자체’ 및 ‘글자꼴’과 유사하여 삭제되었다.

• 타입 디자인 관련 주제어: ‘타입’, ‘타이프’, ‘type’ 등의 주제어는 글자가 아닌 ‘유형(type)’을 지칭하는 논문이 검색되어 제외되었다. 예를 들어, ‘유저타입- 디자인’이나 ‘XX타입에 관한 디자인’과 같은 논문이 해당된다.

• 영문 주제어: ‘typography’, ‘font’, ‘calligraphy’ 등 영문 주제어는 한영 병기가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국내 논문의 특성상 중복된 결과를 초래하여 배제되었다.

(3) 추가된 주제어

이 연구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일부 주제어를 새롭게 추가했다.

• 타입페이스: 선행 연구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서체 디자인 관련 논문을 폭넓게 포함하기 위해 추가되었다.

이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정리로, 사용된 16개의 주제어가 최종적인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주제어가 추가되거나, 기존 주제어의 적합성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선정한 주제어는 연구의 유동성을 반영한 초기 단계의 작업이며, 이후 연구 발전 과정에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힌다.

3.3. 아카이브 결과 정리

이 연구는 주제어 16개를 바탕으로 국내 학술 논문의 메타데이터를 검색 및 아카이브 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총 8,455개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주제어에 따라 중복으로 검색된 논문을 제외한 논문 수는 6,560개였다.
- (2) 정리의 편의를 위해 논문 제목에 한자가 포함된 1,597개와 한자가 포함되지 않은 4,963개로 구분했다.
- (3) 논문 제목에 한자가 포함된 경우, 제목을 한글로 번역하고 초록을 검토하여 한글 타이포그래피와 관련성이 낮은 논문 1,411개를 제외했고, 최종적으로 관련 논문 186개를 남겼다.
- (4) 한자가 포함되지 않은 논문 4,963개를 대상으로 제목 검토를 통해 한글 타이포그래피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논문을 먼저 선별하고, 이후 초록 정보를 통해 추가 검토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성이 낮은 논문 2,955개를 제외하고 2,008개 논문을 남겼다.
- (5) 최종적으로 2,194개의 논문 메타데이터가 아카이브 되었다.

또한, 한영 병기된 제목과 저자의 정보를 한글로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저자의 경우 이하나(Lee Hana), 이하나(Lee Ha-na), 이하나(Hana, Lee) 등 발행기관에 따라 다르게 표기된 경우를 모두 ‘이하나’로 통일했다. 단, 논문의 제목과 저자가 외국어로만 작성된 경우는 수정하지 않았다.

3.4. 완료 및 일정

- (1) 주제어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RISS를 통해 논문의 메타데이터를 검색 및 아카이브 하는

1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타이포그래피’가 표준이지만,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와 같이 실제 타이포그래피를 연구하는 학회에서도 ‘타이포그래피’와 ‘타이포그래피’ 표기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작업은 2024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완료되었다.
(2) 이후, 중복 논문 제거와 논문 선별 작업 및 최종 정리는 2024년 12월 5일에 완료했다.

4. 아카이브 목록

메타데이터를 아카이브 한 국내 학술 논문은 노션(Notion)에 정리했다. 총 2,194개의 논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모든 내용을 본문에 기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리된 아카이브는 노션 웹사이트(www.url.kr/ohl39f)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또한, 이 글을 지면으로 읽는 독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QR 코드를 함께 제공한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되어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1]



[그림 1] 아카이브 확인 가능한 QR코드

5. 보완점 및 추후 계획

5.1. 보완점

이 연구는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시대별 변화와 주요 특징 및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초기 작업으로, 1980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내 학술 논문의 메타데이터를 아카이브 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아카이브 과정과 현 데이터에는 다음과 같은 보완할 점이 있다.

첫째, 한글 타이포그래피와 무관한 논문을 제외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목과 초록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논문을 제외했으나, 이 과정이 연구자의 판단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한다. 이에 따라, 추후 연구에서는 초록 검토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체계적이며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데이터 처리의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아카이브 된 논문 역시 한글 타이포그래피와의 관련성을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여 데이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제어의 유동성과 재검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16개의 주제어는 연구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 것으로, 최종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주제어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 기존 주제어의 적합성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 동향의 변화나 학술적 관점의 확장에 따라 주제어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셋째, 논문 저자 정보의 구체적인 구분이 필요하다. 논문 저자는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RISS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된 저자 정보 중 가장 먼저 기재된 이름만을 정리했으며, 이는 연구 초기 단계에서 편의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추후 분석 단계에서는 교신저자와 공동저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자의 역할을 기반으로 저자 정보를 더욱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술 논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집된 목록에는 학술 논문으로 분류된 전문 잡지나 기고문 등의 글도 포함되어 있다. 초기 메타데이터 아카이브 단계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포함하여 수집했으나,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하고, 명확한 기준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5.2. 추후 계획

이 연구에서 아카이브 된 메타데이터는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이는 연구 초기 단계에서의 작업으로, 최종 결과물이 아니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주제어의 적합성을 재검토하거나 새로운 주제어를 추가하여 데이터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은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의 흐름을 보다 정확히 조망하고, 데이터의 신뢰성과 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논문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원본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연구의 심화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분석을 위한 필수 단계로, 연구 범위 내에서 한글 타이포그래피와 밀접하게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여 시대별 연구 동향과 주요 특징을 더욱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는 보완점에서 제기된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 방법과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초록 검토 과정에서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데이터 처리의 객관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주제어의 적합성과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 동향이나 학술적 관점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제어를 업데이트하며 데이터를 보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고 시대별 변화와 주요 특징을 탐구한다는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분석 방법론을 개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아카이브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 틀을 마련하며, 정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 동향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연구의 학술 가치를 제고하고, 한글 타이포그래피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것을 목표로 한다. 

참고문헌

- 함성아, 「타입과 타이포그래피 연구 동향 분석: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